

1 강. 예술의 존재 이유: 우리는 왜 그림 앞에 서는가 쥘 브르통, 에드바르 뭉크 그리고 그랜마 모지스

2026 년 4 월 9 일 10:30-12:00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본 강연은 촬영, 녹음할 수 없습니다.

*강연 후 발송하는 문자 설문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연은 그림의 유명세나 가격보다, 한 작품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에 오래 남고 마음을 움직이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특히 쥘 브르통, 에드바르 뭉크, 렘브란트 그리고 그랜마 모지스의 작품을 통해 예술이 인간에게 주는 위로와 통찰 그리고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쥘 브르통의 <종달새의 노래>는 새벽 들뜬 선 한 소녀의 모습을 통해, 지치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만드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현재 시카고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한 인간의 마음을 조용히 일으켜 세우는 예술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작품 1}는 용서와 귀환, 그리고 상처 입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러시아 에르미타주 미술관 소장품으로, 화려한 사건보다도 한 인간을 다시 품는 손길과 침묵의 감정을 통해 예술이 어디까지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에드바르 뭉크의 작품은 예술이 아름다움을 넘어 인간의 불안과 고통, 내면의 떨림까지도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절규>^{작품 2}는 오늘날 가장 널리 알려진 불안의 이미지 가운데 하나이며, 뭉크는 자신의 삶 속 공포와 슬픔, 고독을 숨기지 않고 화면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깊은 공감을 남겼습니다.

그랜마 모지스는 예술이 젊음이나 제도권 교육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작가입니다. 그녀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했지만, 미국 농촌의 일상과 계절, 공동체의 기억을 따뜻하고도 선명한 화면으로 남기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예술이 특별한 재능의 증거가 아니라 끝내 삶을 사랑하려는 태도일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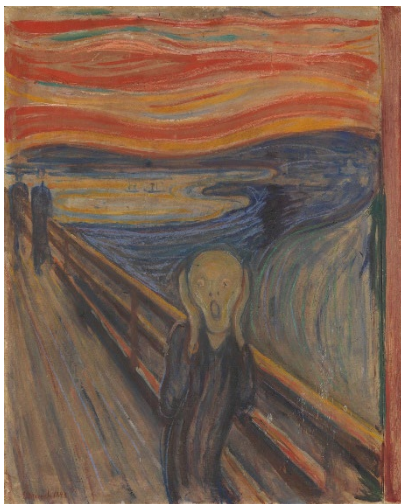
결국 오늘 만나는 네 작가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술은 왜 필요한가?' 쥘 브르통에게 예술은 희망의 새벽이었고, 뭉크에게는 고통을 견디기 위한 언어였으며, 렘브란트에게는 인간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시선이었고, 모지스에게는 삶을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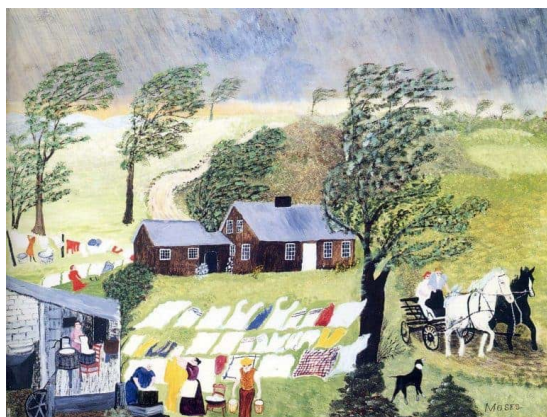
그래서 우리는 그림 앞에 섭니다. 더 많이 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때로는 위로받기 위해, 때로는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때로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작품 1 렘브란트, 돌아온 탕자, 1661-69



작품 2 뭉크, 절규, 1893



그랜마 모지스, 빨래 걷기, 1951

정우철(도슨트·작가) 작품 분석이 주를 이루던 기존의 미술 해설에서 벗어나 화가의 삶과 예술을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전시 해설가. 지은 책으로는 『화가가 사랑한 밤』, 『화가가 사랑한 바다』, 『내가 사랑한 화가들』, 『미술관 읽는 시간』, 『도슨트 정우철의 미술 극장 1~2』 등이 있다.